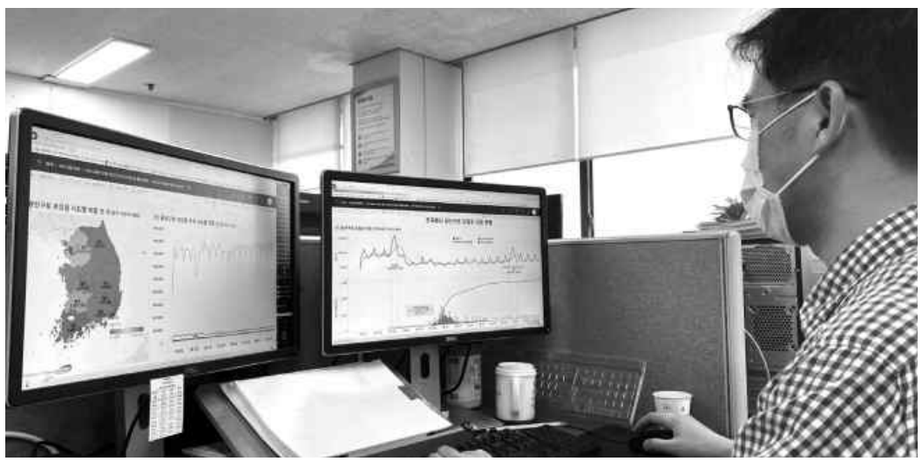
삶의 질 높이는 광산구 데이터행정

코로나 대응·온라인 민원 분석
데이터댐 활용…과학적 정책 추진
정보 공유로 주민 체감도 높여


광산구 데이터정보과 직원이 광산구 유입 인구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

"광산구의 정책은 데이터로 말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광주 광산구의 과학행정이 주목받고 있다. 방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2020년 구축한 광산형 '데이터댐'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의 튼튼한 뿌리가 되고 있다. 3~4개월이 걸리던 데이터 수집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는 등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공유 체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쌓인 무수한 공공데이터는 광산구가 신규 정책을 개발하고,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광산구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지역경제가 흔들리자, '상권 매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어려움을 객관적 자료로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상 대책기구인 광산경제백신회의에서 추진한 1% 희망대출 등 다양한 경제백신 조치는 골목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냈다.

침수취약지역과 온라인 민원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시립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예정지, 공립작은도서관 입지 예정지 등을 결정할 때도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광산구가 매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과제는 30여 건에 달한다. 안전, 경제, 복지, 행복 등 민선 7기 구정 전반에 걸쳐 데이터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체계가 탄탄히 자리 잡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서도 광산구는 단연 돋보인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광산imap(아이맵, imap.gwangsan.go.kr)'에선 가까운 의료기관,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유용한 편의시설을 한 눈에 열람할 수 있다. 건강지킴이, 안전지킴이, 여가도움이 등 7개 주제별로 정보를 구분하고, 행정동별 검색 기능까지 갖췄다.

또 복잡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2종의 공공데이터를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엔 광산구 관내 통(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광산구 통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시작했다.

'우리동네 상권정보 서비스'도 눈에 띈다. 2021년 공개한 이 서비스는 창업·폐업현황, 창업 업체 생존율, 고객 경쟁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광산구 A동의 미용실 3년 생존율이 70%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창업 예정자들이 지역과 업종을 선정할 때 유용한 자료다.

지역 주민이 마을의 안전 상황을 파악·제작한 생활안전지도를 공유하고 있는 '맘편한 광산'은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의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한 광산구는 각종 평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선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앞서 2020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착한임대인' 재산세 올해도 감면

최대 200만원…6월 대상자 신청

광주 광산구는 "올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6월 1일부터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건축물이다.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로 환산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한다.

감면액은 재산세 산출세액에 임대료 인하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다. 3개월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초과 월 수마다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며 그 한도는 최고 75%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세금계산서나 통장 내역 등 임대료 인하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 광산구청 재산세팀(062-960-8125)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시내버스 승강장 새 단장

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봄을 맞아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대대적인 새 단장에 나섰다. 〈사진〉

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광산구 관내 유개승강장 505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새봄맞이 대청소와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대청소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승강장 관련 광고 사업자와 연계해 불법광고물 제거, 광고 현황판 정비 등 대대적인 승강장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또 동절기 발생한 염화칼슘 잔여물, 눈·비,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유개승강장은 고압세척기 등을 이용해 청소한다.

청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또는 이용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진행된다.

신선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정기적인 대청소와 시설물 조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생활체육 지원
이주노동자 축구팀
'아시아FC' 창단

지난 9일 아시아FC 창단식 및 연습경기에 참석한 아시아FC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 이주노동자 축구팀인 '아시아(ASIA)FC'가 창단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하나로 뭉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지난 9일 소셜캠퍼스 온 광주 이벤트홀에서는 '아시아 FC' 창단식이 열렸다. '아시아FC'는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공식 축구팀으로, 광산구 거주 중국, 네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5명의 이주노동자 선수로 구성됐다.

이주노동자 고립감 해소와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힘써 온 아시아외국인근로자센터와 광산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다.

센터는 2009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전국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축구를 통한 생활체육 모임을 적극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생활체육 자조모임'이란 이름으로 매주 일요일 이주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구 교실도 진행했다.

광산구는 주민친화형 다문화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날 열린 창단식에선 축구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공유하고, 창단 선포와 선수 및 임원 소개, 선수 입단식 등이 진행됐다. 또 사회적기업인 파인데이엔터테인먼트와 주식회사 엔아이디가 후원 협약을 맺고 '아시아FC'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K7리그 출전 자격을 갖춘 '아시아FC'는 광산구,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팀을 목표로 훈련과 경기를 펼쳐 나갈 예정이다. 광산구도 이주노동자들의 축구모임 운영을 위한 시설 대관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자원순환 정책 광주 최우수 자치구

광주시 평가서 1위
인센티브 1억8000만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광주시의 '2022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 자치구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1억8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매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자원순환 시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SK케미칼 등 기업과 협업을 통한 투명페트병 선순환 프로젝트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자원 선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탈 1회용품 캠페인인 '용기내 광산' 등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미래세대 자원순환 교육,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비대면 환경정화캠페인 '줍깅(줍기+조깅)' 등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역 커피숍들과 시작한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올해는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까지 확장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촉진하는 '기후행동 1.5℃ 챌린지', 초·중·고교와 공동주택 대상 자원순환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시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극복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